■ 광주일보·문화재단 공동 문화나무 상상강좌 제1탄

"PIFF 亞 최고 될 수 있었던 건 차별화 〈부산국제영화제〉 지역 문화·전통 담은 콘텐츠 전략 필요"

김 동 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광주, PIFF를 만나다'

역시 명불허전(名不虛傳)이었다. 지난 28일 빛고을 문화관 4층 다목적 홀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광주시민들은 김동호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시네마천국'에 푹 빠져들었다. 비록 1시간 30분간의 짧은 '상영'이었지만 관객들은 열정과 소신으로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키워낸 '작은 거인'의 성공스토리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광주, PIFF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김 이사장은 지난 95년 PIFF와의 인연에서 부터 지난해 레드카펫을 떠나기까지 드라마틱했던 15년 간의 삶을 들려줬다.

▲백수(白手), 김지미를 만나다

김 이사장은 "PIFF는 내 인생의 2막을 행복하게 해준 분신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이사장이 PIFF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95년. 당시는 문화부차관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백수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다. 95년 8월 문화불모지인 부산을 '한국의 칸느' 로 바꾸자는 젊은 영화인들이 PIFF창립을 추진하면서 초대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주변에선 "김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문외한이 무슨 영화제냐. 괜히 망신만 당한다"며 만류했지만 그들의 집요한 설득에 넘어가 부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5억원을 후원하기로 한 한 호텔이 투자계획을 철회하면서 18억원(시비 3억원 포함)의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제에 시큰둥하자 오기가 생기더군요. 우선 기금마련을 위해 김지미·정윤희·고은아·윤일봉씨 등 영화배우들을 앞세워 기업인 초청 디너파티를 열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96년 제1회 영화제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정체성·프로그램밍에 올인

부산영화제가 선발주자인 도쿄·홍콩영화제를 제치고 '아시아의 넘버1'으로 불릴 수 있었던 데는 정체성과 프로그래밍 전략이었다. 이들 아시아 영화제에서는 찾기 힘든 차별화된 볼거리에 승부를 걸었다.

'아시아의 새로운 감독, 새로운 배우의 산실'이 되자는 컨셉트였다. 그러려면 좋은 시나리오와 아이디어를 갖춘 감독들에게 자본력이 있는 제작자를 연결시켜주는 매칭전략이 필요했다. '물주'들을 찾아내 감독들의 시나리오를 크랭크 인 하도록 도와주는 'PPP(Pusan Production)' 전략은 대박을 냈다.

▲관(官) 입김 뺀 자율성이 성공비결

부산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자율성 확보가 원동력이었다. 김 이사장은 1회 행사때부터 여러 '장'(長)들의 개막식 인사말을 과감히 생략시켰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영상축하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무대위에서 한 말씀 하고 싶어하는 '높은 분'들의 요구를 물리쳤다.

김 이사장은 "지난 98년 10월 당시 야권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여권의 이회창 후보의 축사를 거절해 양측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린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버틸 수 없었던 일화다. 이 같은 김 이사장의 소신 덕분에 부산영화제는 지원은 전폭적으로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됐다.

▲차별화된 컨셉트가 문화도시비전

이날 김 이사장은 문화도시 광주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부산영화제를 끝으로 '화백'(화려한 백수)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최근 고향(강원도 홍천)인 강원문화재단의 러브콜을 받고 인생의 3막을 시작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의 장밋빛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스토리텔링화하는 콘텐츠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PIFF가 내실을 갖출 수 있었던 데에는 프로그래머 등 직원들의 재교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문화재단이나 예술기관들이 지역인재양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투자 없이는 인재를 키울 수 없습니다."

한편 '문화나무 상상강좌'의 두번째 강좌는 김명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전 문화부장관)의 '우리 소리, 우리음악'이란 주제로 오는 2월24일 오후4시 빛고을 문화관 4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지난 28일 빛고을 문화관 4층 다목적 홀에서 열린 '문화나무 상상강좌'에서 김동호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의 고향사랑

담양군에 '신-묵죽도' 기증… 방문객 위해 군수 접견실 전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고향 담양에 대나무를 소재로 한 미디어 작품인 '신-묵죽도'를 기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렸던 G20 세계정상회의에 선보였던 이 작품은 동양화 속의 대나무가 흔들리고, 눈이 내리는 등 전통 회화를 움직이게 한 이색 미디어 아트다.

군은 세계적인 작품을 군수 접견실에 전시해 담양을 찾은 외래 방문객들이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씨 담양군 봉산면 출신으로 담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으며 현재는 한국의 고전미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창조해 세계미술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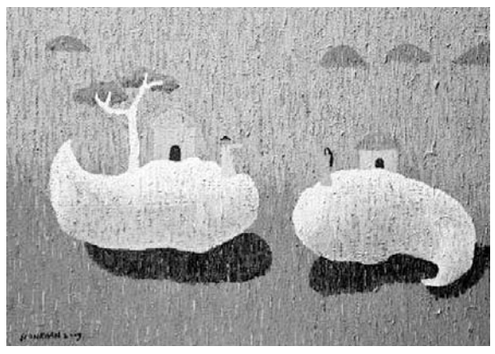
마음을 치유합니다

휄빙작가 시온칸, 2월8일까지 개인전

광주에서 그림을 보며 명상에 잠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휄빙(Hwellbeing)전시회가 열린다. 휄빙은 영어의 Heal(치유하다)과 wellbeing(잘 살다)을 결합시켜서 만든 신조어다.

휄빙 작가 시온칸(배희권)이 오는 2월8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시온칸은 지난해 열렸던 제8회광주비엔날레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 '백만인 얼굴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예술가와 감상자가 작품 안에 담긴 반복적 명상적 코드를 함께 읽어내는 '휄빙아트'를 선보인다. 작품 속 단아한 색채와 편안한 화면 구성은 고향 하늘을 느긋하게 바라보는듯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천상재회'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나온 뒤 24차례 개인전과 초대전을 열었고, '새천년 새로운 정신과 물질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학평론가 이명재씨 '남도문학의 향연' 출간

문학평론가 이명재(중앙대 명예교수·사진)씨가 남도의 문학과 풍물을 담은 작품선집 '남도문학의 향연'(한림펴냄)을 출간했다. 이씨가 그동안 쓴 문학평론과 수필 중 지역 관련 글을 가려 뽑아 엮은 것이다.

책은 '시인·작가와 함께' 등 총 5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소설가 박화성, 시인 김현승, 평론가 장백일 등 작가론을 실었으며 2~3부에서는 '고향 강산과 하늘' '문학 작품을 벗 삼아'라는 제목으로 고향과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과 여행기를 담았다.

4부에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세평 6편을 실었으며, 5부에서는 나의 삶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삶과 문학 여정을 진솔하게 담았다.

함평 출생인 이씨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으로 등단한 후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로 평론을 써왔다. 노산문학상, 월간문학동리상, 한림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환기의 글쓰기와 상상력' 등 평론집과 다수의 저서가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월에 읽으세요"

간행물윤리위 '2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2011년도 '2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비스마르크 평전'(에코리브르 펴냄)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원로 소설가 최일남의 산문집 '풍경의 깊이 사람의 깊이',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영국 역사학자 폴 존슨의 인물 촌평집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등이다.

선정 도서목록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 : //www.kpec.or.kr) 웹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 展
KEITH HARING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2. 27까지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워터스알카리수정수기
월계동 첨단중학교 앞
제품 판매 및 렌탈
A/S 필터교환
고객문의 1577-1012

고선지갈치조림
북구 우산동 우미프라자 상가 앞
갈치조림, 부대찌개 전문
대표 임 중 락
☎(062)266-0047

샤인성형외과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동강B/D 6층
성형외과 전문의 여의사눈·
코·입술·귀 성형, 필러 보톡스 · 각종 레이져 시술
원장 정 지 희
☎(062)261-3050

대명산장어
신창동 진흥고후문 신창동 주민센터 뒤편
25년 전통의 장어구이전문점
대표 김 정 남
☎(062)956-1092

생고기촌 구이박사
신창동 광주은행맞은편
소고기 구이와 삼겹살, 생고기전문
단체모임환영
☎(062)961-8488

밀밭칼국수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항암효과, 노화방지에 좋은, 백년초 칼국수 전문점
대표 김 미 경
☎(062)227-5001

월출암(백마장군)
중흥3동 효동초교후문 일방로
인생상담,병점,사주,궁합,부적등
대표 허 길 배
☎(062)527-2008

LG공인중개사
수완동 수완지구 열병합발전소입구 큰도로변
APT.상가,토지,원룸,빌딩 공.경매,매매및 임대알선
수완지구 중개전문업체,각종부동산컨설팅 상담
☎(062)951-5589

수완꽃조경
수완동 수완지구 열병합발전소입구 큰도로변
꽃바구니,경조화환,동.서양란,실내.외조경
웨딩카,부케 전국꽃배달써비스
☎(062)953-3389

한시루
수완동 수완중학교옆
조개시루찜,해물탕,해물찜,바지락비빔밥,낙지요리전문
낙지덮밥,해물칼국수,초무침,볶음,전골
☎(062)951-8082

신신예술의집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 태 석
☎(062)222-1936

광주화랑
궁동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 매매 무료감정
고급표구,족자판매
☎(062)232-4784

꾼노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
뉴-서울퓨전 소주,호프 룸식주점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236-2636

김용만의국수집
금남로1가 YMCA 1층
맛있게 해드립니다!
☎(062)236-3533

상무성인오락실
치평동 구)황금성 건물 1층
전국을 강타한 마린후레쉬 드디어 상무점오픈!
단돈 만원으로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성인오락실
☎(010)6551-4300

세명당한약방
각화동 503-18번지
건재 한약방
원장 송 판 진
☎(062)261-4343

TVi Express
금남로3가 광주빌딩 7층
회원되시면 평생 할인혜택
홍보이사 오 웅 근
☎(010)7237-5835

(주)아바테 서구지점
풍암동 공구상가 102동 102호
명품전자 담배 아바테 이젠 피우면서 금연하세요
무료시연가능,100%금연,냄새,타르,일산화탄소
각종 3,000가지 발암물질 No
☎(010)8612-4272

빛사랑전기
매월동 산업용재 30동 110호
분전반제작,임시FRP분전제작
자동제어판넬제작전문
☎(062)603-3010

조흥안전
매월동 산업용재 A-4동 136호
건설, 산업안전용품 및 철물
업체 납품 및 판매전문
☎(062)603-3212

주막집국밥
풍암동 풍암저수지건너편 까반느옆
콩나물국밥,순대국밥,머리국밥,새끼보국밥,모듬국밥
된장찌개,삼계탕,김치찌개,암뽕국밥
☎(062)653-6005

시골통닭
방림1동삼거리
각종치킨 전문배달
☎(062)654-9245

미성오리시대
운암동 운암시장사거리 에이스마트옆
오리요리의 명가! 옻닭,한방약오리,추어탕,동태탕
대표 박 홍 수
☎(062)526-7181

생고기촌구이박사
신창동 광주은행맞은편
소고기 구이와 삼겹살, 생고기전문
단체모임환영
☎(062)961-8488

호남(샤시,판넬)기업
방림동 방림우체국앞
인테리어전문,건축집수리 문의환영
철구조물 상가, 일반건축
☎(011)604-8285

대명산장어
신창동 진흥고후문 신창동 주민센터 뒤편
25년 전통의 장어구이전문점
대표 김 정 남
☎(062)956-1092